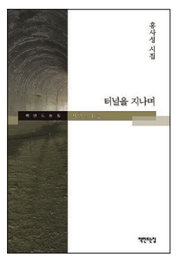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6~12/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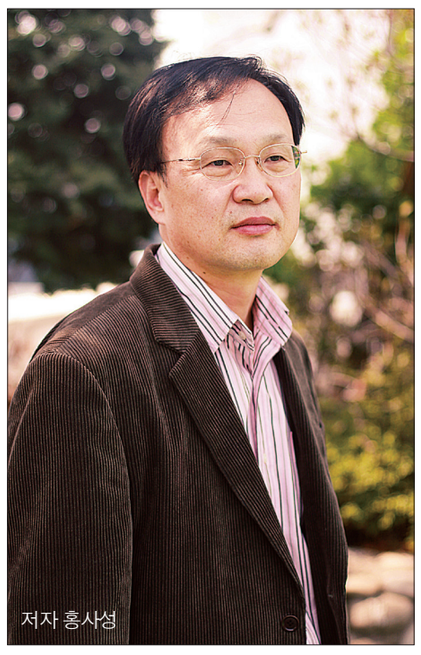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조용헌의 영지 순례 : 기운과 풍광 안생 순례지를 달래주는 영지 23곳	조용헌	불광출판사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9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5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홍창성	운주사	10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밝은사람들총서15)	이필원,김재권,오용석 박찬국,이유경	운주사

책세상

本心에 공명하는 시간



터널을 지나며
홍사성 지음
책만드는집 펴냄
1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홍사성 시인이 시집 〈터널을 지나며〉를 출간했다. 서시 '분홍 고마리' 로 문을 여는 책은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총 5부에 나뉘어 실린 70여 편의 시는 시인의 말대로 한 쪽 한 쪽 꽃처럼, 분홍 고마리처럼 얼굴을 내민다. 정효구 문학평론가(충북대 교수)는 이번 시집을 '본심(本心)에 공명하는 시간' 이라고 해설했다. 홍사성 시인을 "본심을 본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니 "본심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홍사성 시인을 그렇게 다른 시인과 구별했다.

1부에 수록된 작품들은 본심을 보고, 본심을 아끼고 본심을 사랑하고, 본심을 소중히 여기며, 본심과 동행하고자 하는 시인의 각성된 심경을 간절하게 담고 있다. 이번 시집을 계기로 홍사성 시인을 설명하고 있는 '본질' 이라는 단어를 홍사성 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걸어온 불가적 함의 속에서 다시 생각해본다면 이번 시집의 1부에 수록된 작품들은 시인이 아주 오랜 동안 탐구해온 본심의 경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불교시' 라고 할 수 있다. 시를 통해 나타난 그의 본심 탐구와 본심에 대한 사랑은 '불교시' 라는 영역에서 바라볼 때 더욱 깊고 다양한 사유를 이끌어낸다. 탐진치의 오염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의 묵은 본심을 죽비 소리나 범종 소리처럼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한다.

1부의 작품이 '이론' 이라면 2부부터는 '실천' 의 문제들이다. '본심을 행하는 시간'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일상 속으로, 거리 속으로 내려온 시는 어떻게 하면 본심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다. 생활과 거리 속에서 본심은 인간적 생존 카르마와 생명 카르마에 쫓기어 그 자취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경전에서 말하는, 매 순간 깨어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심을 행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시를 쓰고 삶을 되돌아보는 일은 깨어 있는 시

本心 경지 보이는 '불교시' 다수
"詩, 본심의 체화와 정진의 과정"

간, 수행의 시간인 것이다. 시인은 삶 곳곳에서 본심이 행해진 표정들을 찾아 적었다. 시 '따뜻함의 힘' 에서 따뜻함의 위력을, '선인장 사랑' 에서는 '무심' 의 공덕을, '동행' 에서는 동지에 이르는 인내를 적고 있다.

이렇듯 '본심' 이란 쉽게 볼 수도, 쉽게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매순간 깨어서 돌아보고 키워내야 하는 일인 것이다. 홍사성 시인에게 이런 '본심' 의 체화와 그 정진의 과정은 '시 쓰기' 를 통해 이뤄진다. 그에게 시 쓰기와 본심으로 가는 길은 같은 길이기 때문이다.

'본심을 실천하는 시' 들은 다시 '본심을 전하는 시' 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정보의 이름으로, 지식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전한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면서 어려운 것이 본심을 전하는 일이다. '본심' 을 전하는 것을 '도(道)' 를 전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도(道)는 '진리' 의 다른 말로, 오래된 질문이자 숙제이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를 본 사람, 이를 들은 사람, 이를 행한 사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집의 뒷부분은 이런 '본심을 전하는 시간들'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인은 일상의 평범한 소재를 통해 그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작품 '지중해' 에서는 바다처럼 깊은 삶의 깊이를, '설악산 소나무' 에선 언제나 푸르고 큰 소나무의 항상심을, '장백폭포' 에서는 처절한 수행의 영원성을 전한다.

이렇게 '본심을 전하는 시간' 의 관점에서 홍사성 시인의 시를 이야기할 때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작품 '터널을 지나며' 는 지나칠 수 없는 이번 시집의 '집약' 이다. '터널은 어둠의 길이다' 로 시작되는 시는 '터널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로 맺는다. 시 '터널을 지나며' 를 통해 본다면 시인도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대면해야 하는 터널들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 시인은 그것을 아픔이기도 하고, 비애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하다도 적고 있다.

홍사성 시인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2007년 〈시와시학〉에서 등단했으며, 시집 〈내년에 사는 法〉 과 〈고마운 아침〉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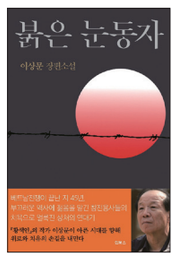
책 속의 밑줄 긋기

20쪽 / 선탈 - 여름 한철 /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매미 / 날 추워지자 / 더 울지 못하고 울음 뚝, 멈추었다 // 땅바닥에 떨어진 시체 / 소리의 사리라도 됐을 줄 알았더니 / 개미조차 파먹을 수 없는 / 빈 껍데기다 // 바람 속으로 / 죽은 매미 껍질 던지다 돌아보니 / 악다구니 쓰며 살아온 세월 / 참 우습다 // 옛날 어떤 고승은 / 떠날 때 되자 / 짐승의 먹이나 되겠다며 / 목욕하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35쪽 / 따뜻함의 힘 - 산수유도 꽃망울 터지기 전에는 / 죽은 삭정이에 불과했다 // 봄바람도 볕에 몸 녹이기 전에는 / 차가운 북풍일 뿐이었다 // 내 가슴도 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 가을걷이 끝난 벌판이었다 // 어느 날 천지가 이상해졌다 / 따뜻한 눈길 느낀 그날부터였다

75쪽 / 장백폭포 - 한 반만년쯤 울다 보면 / 저렇게 되나 보다 // 밤낮없이 울고도 / 더 쏟을 눈물 남았나 보다 // 울고 또 울어야 / 눈물 없는 세상 오나 보다 // 아직도 다 마르지 못해 / 쏟아지는 / 외줄기 / 눈 / 물

월남전을 소설로 다시 생각한다



붉은 눈동자
이상문 지음
인북스 펴냄
1만3천원

월남전에 파병된 병사 이야기
전쟁의 진실과 후유증 드러내
"월남전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월남전쟁을 다시 생각하는 소설이다. 신간 〈붉은 눈동자〉는 설혹 그 일, 월남전쟁이 악몽으로 되짚어진다 해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소설이다.

〈붉은 눈동자〉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 젊은이가 수색중대 병사로 최일선에서 싸운 전쟁이야기다.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난 전쟁을 실감나게 그리며 그 전쟁의 진실과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시대의 저편에 웅크리고 있는 아픈 상처를 향해 치유와 용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장편소설이다.

저자 이상문은 그동안 폭력적인 역사 속의 인간 존재의 비극에 대해 꾸준히 탐구해왔다. 따뜻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인간들의 예의와 양심 그리고 사랑을 그려온 이상문 작가는 데뷔작 〈탄흔(彈痕)〉과 장편 〈황색인〉 등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자신의 필생 과제로 삼아왔다.

이 작가의 덕목들이 집약된 작품이며 그가 그려온 베트남전쟁에 대한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눈동자〉는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베트남전쟁을 재조명하며 그 전쟁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참전 군인들의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시대의 비극에 휩쓸려 좌절하고 상처 입은 인간들을 향해, 위로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화해와 치유를 모색한다. 〈붉은 눈동자〉에는 화자(話者)이자 주인공인 황덕수와 상대역인 구종구, 그리고 두 사람을 중재하는 정미연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베트남의 청순한 여고 3년생이었던 티엉마이와 전우 엄종철, 주인공의 회사 동료 김하나가 등장한다.

펄프 제지 관련 오퍼상을 31년째 꾸려오는 황덕수는 6 · 25 와중에 남편을 잃고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란 트라우마를 지닌 인물이다. 대학 시절, 날마다 시위에 나서야 하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껴 자원입대했다. 베트남 파병도 자원해 수색 중대에 배치됐다. 거기서 위문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은 정미연과 제대 후에 결혼하지만, 전쟁의 후유증으로 성부전증을 앓게 된다.

황덕수와 같은 수색 중대에서 전투를 벌였던 구종구는 6 · 25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 출신이다. 제화공으로 일하다가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을 속이고 입대해 참전한다. 무방비의 베트콩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악마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챙기려는 탐욕적 행태 등으로 황덕수가 적의를 품게 되는 비열한 인물이다. 대학 재학 중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돌아와 제대한 황덕수와 결혼하고, 전공했던 피아노를 학원에서 가르치며 가난한 신혼살림을 꾸려간 정미연은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남편의 성부전증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도 순종적인 아내의 마음으로 갈등을 인내하던 정미연은 당뇨병과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만다. 3년 후 정미연이 남편 황덕수 꿈속에 나타나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한국군의 최초 참전 시점부터 55년이 흐른 지금, 그 병사들은 이제 고희를 전후한 나이가 됐다. 참전의 시간이 아득한 기억 속으로 희미해져 가는 듯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길 없는 그들의 트라우마는 되살아난다. 작가는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시달리며 늙어가는 동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운 그 베트남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참전용사로서 묻는다.

박재완 기자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mm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mm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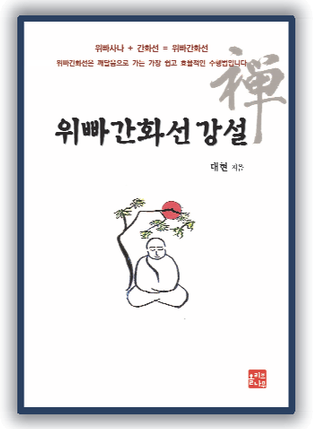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수행의 가장 빠른 길 = 간화선 + 위빠사나

위빠간화선 강설

대현 지음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다. 간화선 수행자라도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화두를 놓칠 때마다 놓쳤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곧바로 되들기를 할 수 있다.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극치인 간화선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야말로 수행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 본책 + 강설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선을 배우는 길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 (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 (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 대현 지음 / 신국판 / 302쪽 / 값 15,000원



선승의 길

수행으로만 일관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수행법. 여러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호흡법 등 기초공사의 중요성, 그리고 참선의 지름길을 밝힌다.

* 대현 지음 /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올리브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10, 705-101
Tel. 070-8274-1226, 010-7755-2261 FAX. 031-629-698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